

‘평생학습 새 삶을 두드리다’ 수기 공모전

부문	학위과정	성명	조수아
제 목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p>“아따, 뭘 공항이 이래 x딱지만 허냐.”</p> <p>위잉. 유독 커다란 엔진소리를 뒤로하고 비행기 계단을 내려오니 후덥지근한 공기가 얼굴로 확 끼쳐 올랐다. 나라마다 그 나라의 고유한 향내가 있다고 하더니 정말이다. 누린내를 함유한 탄내가 코끝에 매캐하게 맏힌다.</p> <p>사람 반만 한 등산 가방을 매고 캐리어와 커다란 상자 박스 너댓개를 카트에 옮겨 담으니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p> <p>“허유...”</p> <p>물론 내가 온다고 한 것 이지만서도, 막상 허리를 펴고 산더미 같은 짐이 담긴 카트와 함께 이 낯선 나라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절로 한숨이 나왔다. x딱지만 한 공항에 사람은 왜 그렇게 많은 지 거의 떠밀려서 공항 검색 대 앞에 섰다. 공항 직원에게 여권을 건네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자니 뭔가 눈치가 이상하다.</p> <p>“완 딸라.”</p> <p>그러더니 까무잡잡한 검지손가락 하나를 내 눈앞에 들이대고는 완달라, 완달라거린다. 아, 이거 그 거다. 빨리 빨리에 미친 한국인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나가려고 현지 직원들에게 슬쩍 1달러씩 찔러주면서 생긴 이상한 버릇.</p> <p>조금이라도 한국사람 같이 생겼으면 여권을 인질로 1달러를 요구한다.</p> <p>1달러? 1달러 할머니도 그냥 못 줘 이 양반아. 나는 그들이 못 알아듣는 한국말로 읊조리며 직원과 눈싸움을 시작했다. 그렇게 한참을 중얼중얼거리며 눈만 부리부리하게 뜨고 있자 공항직원이 포기한 듯 ‘오케이.’ 여권에 도장을 콧 찍고는 나에게 내밀었다. 내가 이겼다.</p> <p>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밖으로 나가는 게이트로 향하는데 게이트 도어 앞에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대기하던 공항 직원이 멈춰 세웠다. 마지막으로 아까 받았던 도장과 짐 검사를 하는</p>			

사람 같았다. 나를 멈춰 세우곤 내 박스를 칼로 푹푹 찢어보는 것이 아닌가! 순간 화딱지가 나서 얼굴이 벌개지고 오만가지 욕이 내 머리를 스쳐 갔다.

“왓 이즈 디스? (야 이거 뭐냐. 너 뭐 팔려고 온거지?)”

“엄...디스 이즈 먹을...푸드! 코리아 로컬 푸드! (아니거든? 이거 엄마가 싸준 음식이야 임마!)”

벌건 얼굴로 푸드! 푸드! 외치는 나를 의심쩍은 눈으로 바라보던 직원도 찢러본 구멍으로 음식이 살짝 보였는지 이내 바리케이드를 열어주며 보내주었다.

무슨 x딱지 반만 한 공항을 나오기가 이리도 힘든 것인지... 벌써 지친 듯 다리에 힘이 풀렸다. 게이트를 나서 밖으로 나오자 비행기에서 내리며 맡았던 탄내와 후덥지근한 공기가 다시 내 온몸을 덮쳤다. 그제야 실감이 났다. 드디어 발을 디뎠다. 캄보디아에.

*

나는 어느 곳이나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다.

단지 조금 생각이 많은 고등학생일 뿐이었다. 또 조금 기분파였을 뿐이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이 아니면, 곧 죽어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 순간에도 무엇을 하고 싶은 지, 해야 하는지 결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냥 대학을 안(못)갔다.

친구들처럼 성적에 맞추어 알지도 못하는 oo대학 oo과에 들어가서, 흥미도 없는 공부를 하고, 술과 학점의 노예가 되어 시류를 따라 뻘뻘 몸뚱이를 내어 팔기는 금붕어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6개월을 택배 회사에서, 1년을 공장에 다니며 돈을 모았다. 그리고 꽃다운 21살 9월, 남들 대학서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고 있을 때 가진 여름 옷 몇 벌과 에프킬라(인천공항 검색대에서 빼앗겼다.) 삼선 쓰레빠를 등산 가방에 챙기고 캄보디아로 향하는 편도 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

내가 캄보디아에서 몸을 의탁한 곳은, 한 작은 국제학교였다. 교회를 통해 알게 되어 1달 정도 여행 겸 단기 체험으로 생활을 해본 후, 이 학교에서 2년의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

하였다.

내가 갔을 때 선생님 (나 포함) 3명, 할머니(교장 선생님의 어머니), 학생 8명.

총 인원 12명이서 작은 2층 집을 빌려 국제 학교라는 간판 하나도 없이 학교생활을 시작하였다.

하루 종일 8시간 풀타임 수업을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는가?

10킬로그램이 빠진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모여서 새벽기도를 한다. 7시쯤 동네 한 바퀴를 아이들과 뛰고, 온 동네 개들을 다 이끌고 시끌벅적하게 학교로 돌아오면 7시 30분, 30분 동안 캄보디아식 바게트와 달걀로 아침 식사를 한다. 다시 30분 뒷정리를 하고, 샤워 및 세안, 아이들은 교복으로 갈아입고 나는 수업준비를 한 후에 9시부터 수업을 시작한다. 선생님이 세 명이고 학급도 세 학급이었기 때문에 한 학급씩 맡아 하루 종일 수업을 하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했다.

그런 시간들이 익숙해 질쯤, 학생들도 늘어나고 선생님들도 늘어나 2층 집이 포화상태가 되어 더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0.5헥타르(5000m²)정도 되는 땅을 구입하여 그곳에 학교를 지어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우기와 건기로 나뉘는 캄보디아의 기후 특성상 건축은 건기에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스콜이 많이 내리는 우기엔 땅에 고인 물을 빼느라 굵은 장대비를 맞아가며 아이들과 함께 물길을 터 물을 빼냈고, 담을 둘러치고, 땅을 다져갔다. 땅 값도 분할 납부하는 상황이라 당장 다음 달 생활비도 없었던 우리 학교는 노동력에 돈을 들일 수 없었다. 학생들과 선생님 모두가 힘을 합쳐 건축을 시작했다.

땅을 파고(물론 이건 포크레인이 함), 거푸집을 만들고, 콘크리트를 부어 기초를 만든다. 조적으로 벽을 세우고, 아이들이 손수 땀질을 한다. 장비 부족으로 밤마다 눈이 시려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우고, 불뚱이 옷을 파고들어가 살갓이 동그랗게 탄다. 어떤 아이는 타카를 엄지에 잘못 싸 손가락을 부여잡고 병원에 가기도 하였다. 학급마다 돌아가며 한 주는 공부를 하고 한 주는 건축을 한다. 매일 밖에서 일해 하얗던 한국 선생님들도, 까무잡잡했던 캄보디아 학생들도, 하나같이 면상들이 시커멓다. 그래도 서로를 향해 하얗게 웃는다. 학교가 지어져 가고 있었다.

행복했다. 땀질도, 삽질도, 바지가 진흙 색깔로 누렇게 변해도 행복했다.

힘들었지만 계속 이렇게 함께 일하며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도 나도

함께 커가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다. 그리고 캄보디아에 와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만나 것에 감사했다.

갑자기 아빠가 돌아가셨다.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며 아이들과 캐롤을 부르던 이브 날, 아빠는 이역만리 너머에 딸을 두고 인사도 없이 하늘로 올라갔다.

전화로 전해진 비고에 그렇게 청명하고 상쾌하기만 했던 하늘이 한순간에 무너져 무겁게 내 어깨를 내리 눌렀다. 그래서 나는 3년간 함께 웃고 울며 살았던 캄보디아를 떠나 한국으로 돌아왔다.

*

다시 또 막막한 그 느낌이었다.

다시 고등학생이 된 것처럼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나에게 있는 것이라곤, 고등학교 졸업장 하나, 남편 잃은 엄마 하나, 아빠 잃은 동생 하나, 이제 낯설어진 한국 땅뿐이었다. 나에게겐 캄보디아가 태어난 고향이었다. 망망대해를 만난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시간이 계속되었다.

어쩔 땐 원망을 하고, 어쩔 땐 슬퍼서 소리 죽여 울며 버티고 버티던 어느 날, 탄내를 맡았다. 캄보디아의 후덥지근하고 달짝지근한, 매캐했던 바로 그 냄새였다. 코에 스치는 그 냄새와 함께 건축을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이 곧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학력도 경제 상황도 무엇 하나 준비된 것이 없었다. 나이도 어느새 훌쩍 먹어 내 나잇대 친구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이미 회사에 들어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있었다.

건축회사는 최소 초대졸 부터였다. 그렇다고 입시부터 준비하 자니 생각만으로도 끔찍했다. 건축 입문은 나에게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높은 담처럼 느껴졌다.

처음엔 4년제 건축전문 직업학교를 알아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4년간 오로지 공부만 해야 했기 때문에 당장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던 나로서는 학비도 제대로 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내가 내린 결정은 포기였다.

하지만 건축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실내건축을 먼저 배워보자는 생각

이었다. 실내건축을 배워 직업으로 삼고 일하다 보면 건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었다.

국비로 6개월간 직업학교에서 캐드와 BIM, 실내 디자인을 배워 실내건축산업기사 자격증을 따기에 이르렀다. 자격증을 딴 후에는 인테리어 사무실에 취직을 했다. 캄보디아와 건축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졌다는 생각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다.

3개월간 또 집을 떠나 타지에서 일하며 직업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몸으로 체화 하기 시작했다. 몇 개의 현장을 도맡으며 일을 배워갔다. 비록 건물의 실내였지만, 그래도 내부 또한 건물의 일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벽이 올라가면 공간이 생기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였다. 내가 머릿속으로 그린대로 생각한대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있자면 기분이 이상해졌다. 뿌듯한 것 같기도 했다.

그런데 그러던 중 또다시 일이 생기고 말았다. 코로나가 터진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던 나는 전국을 덮친 바이러스로 인해 3개월 만에 일도 집도 정리하고 다시 엄마 곁으로 돌아왔다. 화딱지가 났고,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4개월을 웅크리고 기다리며 가만히 생각했다. 건축을 해야겠다고. 나는 아무래도 건축을 해야 했다.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질 때쯤, 취직과 동시에 한양사이버대학교의 문을 두드렸다.

두 말 할 것 없이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를 선택했다.

대면으로 하는 모든 길이 막히면서 100% 온라인 수업으로 공부할 수 있는 사이버 대학의 강점이 두드러지게 눈에 띈 것이다. 주간에는 일하며 저녁 시간과 주말을 활용하여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갔다.

나는 현재 측량회사를 다니며 한양사이버대학교에 진학 중이다. 이제 1학년을 마쳐 가고 있으며 갈 길은 아직 구만리다.

나는 건축을 통해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

캄보디아에서 그랬던 것처럼 건물을 짓고 싶다. 건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지어가는 그 과정 속에 즐거움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존경하는 건축가 알레한드로 아라베나의 말처럼 건축은 집단적인 행위이다. 혼자서는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과 함께 그 기쁨과 행복을 나눌 수 있다.

나 스스로도 행복하고, 그 행복을 함께 나누는 건축가가 되고 싶다.

지금까지 세상이 나에게 친절했던 적은 없었으나, 그로 말미암아 나의 비늘이 두꺼워진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때때로 파도가 눈앞에서 부서지고, 때로는 내 앞에 폭풍이 도래

하였지만 나름의 거친 그 바다를 헤쳐가며 오늘까지 버티며 살아왔다.

이제는 강을 거슬러 오를 시간이다. 나는 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간다.

마치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